

# 학교법인 청암학원

## 2021년 1회 법인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6인	1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 시 : 2021년 3월25일(목) 13:00 ~ 15:00 (소집통보일 2021년 3월 16일)

2. 장 소 : 학교법인청암학원 이사회의실 및 온라인 접속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 사 (6인) : 강병환, 강사범, 김도영, 배동호, 오초녀, 유병용

° 불참 임원

- 감 사 (1인) : 신경오

4. 상정안건

- 의안 제2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 의안 제3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의안 제4호 청암대학교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제4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 의안 제5호 청암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의안 제6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 의안 제7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의안 제8호 순천청암고등학교 면직(명예퇴직) 제청 심의(추인)
- 의안 제9호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 심의
- 의안 제10호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제청 심의(추인)
- 의안 제11호 청암대학교 2021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 제청 심의

5. 회의내용

가. 국민의례

의 장(김도영) 온라인 참석 등으로 국민의례 등의 의식은 생략한다고 설명하다.

나. 개회선언

의 장(김도영) 재적이사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에 필요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1회 법인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 1호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상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다.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오초녀	이 사 유병용	유병용
------------	-----	------------	-----	------------	-----

- 이 사(강병환) 회의 진행(의장) 관련 질의하다.
- 의 장(김도영) 1호 안전이 법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장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시의장은 1호 안전이 상정돼서 제가 이사장에서 해임이 되면 그때 임시의장을 뽑으면 된다고 설명하다. 그런데 법원에서 1호 안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의장은 이사장이 그대로 한다고 발언하다.
- 이 사(강병환)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화상으로 참석하지 않고 직접 회의장에 나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다.
- 의 장(김도영) 화상으로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요즘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우리가 이사장님의 일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다.
- 의 장(김도영)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얼른 안전을 처리하자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재차 이사장님의 일터로 가면 안 되느냐고 질의하다.
- 의 장(김도영) 화상으로 얼마든지 회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이 사(유병용) 의장이므로 회의장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다.
- 의 장(김도영) 화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다. 안전상정

#### 2) 순천청암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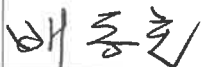


- 의 장(김도영) 의안 제2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을 상정하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입생 모집 현황 및 졸업생 진로 현황 자료와 2020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자료를 추가로 배포하고 2020학년도 3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654,126천원, 경정예산액 8,770,727천원으로 116,601천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3차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는 2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교부 확정된 목적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특지원금으로 교부된 목적사업비 고등학교 비대면 학습지원금 외 7개 사업,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교부된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외 1개 사업, 기타이전수입, 행정활동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학부모 부담수입(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미 실시 교육활동 예산을 감액하여 방역예산 추가 확보 집행하였고, 운영비 잔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조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학부모 부담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감액 조정하였음을 배포자료와 함께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순천청암고등학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 이 사(유병용) 주로 증액된 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목적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답변하며, 특성화고 장학금, 고등학교 비대면 학습지원금 등이 증액되었다고 설명하다. 그리고 재정결합 지원 인건비 등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정교사 수가 줄고 기간제 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 변동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3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 의 장(김도영) 재차 동의와 재청을 확인하다.
- 이 사(전 원) 3차 추경예산안에 동의하다.
-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2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3) 청암고등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의 장(김도영) 의안 제3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2021학년도 본예산은 7,098,249천원으로 전년도 7,400,054천원 대비 301,805천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감액 주요인은 2020학년도 32학급 학생정원 730명이었으나, 2021학년도 30학급 674명으로 2개학급 56명 감소하여 기본 운영비가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 석식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관련 경비가 감액되었고, 현장체험학습 중 국제교류활동 등도 취소되었고, 교복구입비가 무상지원되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사업이 없어지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301,805천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하다. 그리고 명예퇴직 교원 1명 및 휴직교원(육아휴직 4명, 질병휴직 1명)이 다수 발생하여 교직원 인건비에서 정교원 인건비가 감소하고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추가 설명하고,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대비는 1,800,000천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신학년도가 시작되면 각종 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사업유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순천청암고등학교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이 사(유병용) 지자체지원사업에서 원어민보조교사운영사업이 왜 없어졌는지를 질의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원어민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2학기부터 없어졌다고 답변하다.
- 이 사(유병용) 그러면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특성화고교인만큼 기능영재반 운영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지원, 문화예술, 국제교류활동 등의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 이 사(강병환) 교내에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지를 질의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교육청에서 올 1월에 지원금을 교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부 회계연도와 학교 회계연도가 다르고, 석면공사를 위해서는 45일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여 겨울방학에는 진행하기가 어려워 2021학년도 하계방학에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공사 기간을 확보하여 석면교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이 사(유병용) 학교 운영에 예산이 충분한지를 질의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예산이 전년 최종예산대비 1,800,000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예산 지원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이 사(강병환) 실질적인 교육활동 예산이 많이 감소 돼서 걱정이라고 발언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이사님 말씀대로 교육활동 예산이 줄었다고 동의하며, 교원 정원 64명 중 기간제 교원이 20명이 넘는 상황으로 향후 5년까지 학생 추이를 봐가면서 교원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작년에 3개 과목에 대해 충원 요청을 했는데 1명만 승인을 받았고, 임용 절차로 과학(생물) 1과목에 대해서만 충원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2021학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동의하다.
- 이 사(강병환) 재청하다.
-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3호 순천청암고등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4) 청암대학교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 의 장(김도영) 의안 제4호 청암대학교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 예산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담당(문병천) 기타이월금 최소 발생을 위해 제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3차 추경액 23,654,688천원 대비 438,199천원 감액된 23,216,48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세부적으로는 등록금회계에서는 계절학기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예금이자 등의 교육외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원, 청암학숙관 등이 제기능을 하기 어려워 비등록금 수입에서만 441,199천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청암대학교 제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이 사(유병용) 복직된 교원 급여에 관하여 질의하다.
- 기획처장(정경석) 추경에 미지급 급여가 반영되어 있음을 답변하고 2021학년도 회계에서도 1억 정도를 추가 반영하면 전체 금액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과의 계약 문제가 남아 있어 그 부분이 해결되면 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법인에서 해결해야 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정경석) 임용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법인이사장이 임용권이 있는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데) 임용권자가 사실 지출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가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 법인에서 정리해서 학교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호봉제 교원은 호봉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연봉)제 교원의 경우는 계약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인과 이야기해서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다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잘 부탁한다고 발언하다.

이 사(강병환) 지금 국제교류원은 잘 운영되는지를 질의하다.

기획처장(정경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예비된 인원이 베트남 학생 50여명 있었는데 입국이 되지 못해서 올해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서 아예 정규과정으로 학과를 개설하려고 한다고 답변하며, 우리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혁신지원사업에서도 국제교류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반납받았음을 추가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갈수록 학생모집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대학이 많이 어려운데,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2020학년도 제4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원안대로 동의하다.

의 장(김도영) 재청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전 원) 재청하다.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4호 청암대학교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5) 청암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의 장(김도영) 의안 제5호 청암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 예산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예산담당(문병천)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 결과 신입생입학금은 1인당 256,600원으로 2018년부터 5개년에 걸쳐 13.4%씩 줄여나가고 있으며 총 입학금 수입이 269,686천원으로 추정하였고, 202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신설학과인 웹툰콘텐츠과는 보건계열 수준인 2,709천원으로 책정되어 등록금회계 수입이 14,171,281천원, 부설기관 등의 비등록금회계 수입이 8,716,264천원으로 총 22,887,545천원으로 편성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다. 등록금회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무처의 보수, 관리운영비 등이며, 그 외 교내장학금 및 학생경비로 사용되며, 입시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등록금회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청암대학교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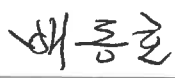


이 사(유병용) 지금 청암학숙관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 기획처장(정경석) 학과에 따라서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대면 수업을 하기도 해서 현재 학습관이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하다.
- 이 사(유병용) 법인에 예산이 많아서 학교에 지원도 해주고 하면 좋을텐데,, 부끄럽습니다.라며, 여유가 있는 이사님들이 대학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정경석) 기획처에서 예전 2018년도에 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하려 다녔었는데, 안정되면 다시 하고자 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지나면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는 극복하기 쉽지 않으니 평생교육원이나 국제교류원 수입을 많이 늘려야 하고 2018~2019년부터 이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제로 상태로 되어버려서 올해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추가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앞으로 법인 이사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해서 대학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원안대로 동의하다.
-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5호 청암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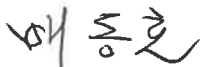


#### 6) 학교법인 청암학원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 의 장(김도영) 의안 제6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을 상정하고 법인 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담당(김진희) 법인회계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0년 9월 21일~22일에 걸쳐 실시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0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서 기부금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고 그 내용은 대학으로 기부받아야 할 주거래은행(신한은행)으로부터의 기부금 2,600만원을 법인회계 일반기부금으로 기부받아 수입처리한 후 전출한 것으로 사후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3차 추경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법인 수입에서 감액하여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액 64,432천원 대비 26,000천원 감액된 38,432천원으로 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이 사(유병용) 법인 예산이 적은데, 기부금 수입까지 줄어서 대학이나 고교에 법정기부금으로 줄 예산은 있는지를 질의하다.
- 법인담당(김진희) 현재 법인의 주 수입은 설립자님 가족분들께서 기부해 주시는 교내 토지사용료 월200만원이 가장 크며, 그 외에는 교직원들의 기부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임원들이 기부금을 낸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법인담당(김진희) 김양숙 이사님이나 강병현 이사장님이 내신 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 이 사(유병용) 학교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협조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제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법인담당(김진희) 평가지표 중에도 법정기부금을 어느 정도 내는지가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2020회계연도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1500만원 법정부담금을 전출했고, 고교에도 740만원 전출했다고 설명하다.
- 이 사(유병용) 설립자님 가족분들은 매월 기부금을 납부하는데, 나머지 임원들은 전혀 발전기금은 내지도 않고 소송비만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 의 장(김도영) 예전에 이사였을 때 300만원 발전기금을 낸 적이 있다고 발언하다.
- 이 사(오초녀) 옛날 이야기인 것 같다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작년, 올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법인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임을 안타까워하다.
- 의 장(김도영) 제가 이사였을 때 300만원을 냈었는데, 이사님께서 최소한 이런 발언을 하시 고자 할 때는, “나는 얼마를 냈으니 우리 임원님들 좀 법인 발전을 위해서 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임원 모두 반성하자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하며, 신한은행 기부금도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입이 있어야 학교를 돕지 않겠느냐고 발언하다.
- 의 장(김도영)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이사님들께 부담 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그러면 조용히 내시라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는 법인이 열악한데 소송비 등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 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하다.
- 이 사(오초녀) 유병용 이사의 발언에 동의하다.
- 의 장(김도영) 소송비가 안 나오도록 서로 협조해 보자고 발언하다.
- 이 사(유병용) 그 말씀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발언하다.
- 의 장(김도영) 법인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질의하다.
- 이 사(배동호) 동의하다.
- 이 사(유병용) 재청하다.
-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6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제 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추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 사(유병용) 현장에 직접 나오셔야 의사진행이 매끄러울텐데..라며 회의 진행의 어려움을 지적하다.
- 의 장(김도영) 다음에는 나가겠다고 발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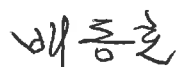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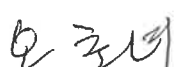

#### 7) 학교법인청암학원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 의 장(김도영) 의안 제7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고 법인 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담당(김진희)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수입 대부분은 설립자 가족분들의 기부금과 교직원들의 기부금이며, 그 외 수입으로는 법인의 수익용예금의 예금이자 수입이 전부라고 설명하며, 2020년에 비해 정기예금 이율이 더 낮아져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안은 2020년 3차 추경자금예산액 38,432천원 대비 19,845천원 감소한 18,58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학진흥재단 2020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서 법인 업무 겸직직원의 급여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이 역시 사후시정사항으로 결과를 제출해야 상황으로 법인 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법인 겸직직원의 급여 예산을 배정해야 함을 설명하다. 그 외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참석 교통비, 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통상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서는 꼭 필요한 외부회계감사용역비와 증명서 발급수수료, 임원등기 변경 수수료 외에 소송관련 비용은 최소화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법인이 소송에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과 상대방 소송비용을 2021회계연도에서 일부 지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고, 대학과 고등학교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2020년 수준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이 사(유병용) 재정이 열악하여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발언하다.
- 의 장(김도영) 예산안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하다.
- 이 사(강병환) 동의하다.
-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7호 학교법인청암학원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8) 순천청암고등학교 면직(명예퇴직) 제청 심의(추인)

- 의 장(김도영) 의안 제8호 순천청암고등학교 면직(명예퇴직) 제청 심의(추인) 건을 상정하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행정실장(류승현) 음악 교과를 담당하시는 강성호 선생님께서 2021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 신청하였는데, 2월 말 전에 이사회가 개최되어 정상적으로 의결받았어야 하나, 이사회 개최가 늦어짐에 따라 행정적 조치는 다 취했고 교육청에서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져서 추인받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의 장(김도영) 면직 제청 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하다.
- 이 사(유병용) 이사회 개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면직에 동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이 사(오초녀) 재청하다.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8호 순천청암고등학교 면직(명예퇴직) 제청 심의 (추인) 건은 순천청암고등학교 강성호 선생님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 직하는 것으로 의결(추인)되었음을 선언하다.

#### 9)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 심의

의 장(김도영) 의안 제9호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 심의 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류윤석) 2021학년도 1학기에 계약제 전임교원 충원 요인이 발생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간호학과 1명, 병원의료정보과 1명, 웹툰콘텐츠과 1명 총3의 전임교원 을 충원하기로 의결하여 채용 과정을 진행하였고, 서류 접수 결과 간호학과 5 명, 병원의료정보과 0명, 웹툰콘텐츠과는 2명이 지원하였는데 웹툰콘텐츠과 1 명은 지원자격 미달로 간호학과만 전임교원 채용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서 영자 선생을 임용예정자로 선발하게 된 채용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3월 1일자로 임용제청하였으나 이사회 개최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4월 1일자로 임 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신규임용 제청 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기 제청 올린 3월 1일자가 아니라 이사님들의 승인을 받고 4월 1일자로 임용 처리하고자 함을 보충 설명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회 개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신규임용에 동의하다.

이 사(강병환) 참고로 제청서류에 개인정보 등이 많아 취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다.

이 사(유병용) 앞으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하였을 것이므로 신규 임용 서류 는 간략하게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법인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4월 1일자로 임용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다.

의 장(김도영) 안전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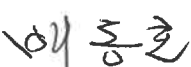

이 사(유병용) 논의 중이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재청하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배동호)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발언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심의 중이라고 전달하다.

교무처장(류윤석) 4월 1일자로 전임교원이라던지 교원 충원율을 보고하는데, 최소 전임교원확보 율이 54%여야 하는데, 간호학과 교원 1명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54%에 미달 되는 상황이어서, 4월 1일자로 교원 충원을 하기 위하여, 웹툰콘텐츠과, 병원의 료정보과,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을 채용을 진행한 경과를 설명하고 어제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제청을 긴급하게 안전 상정 요청하였음을 설명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법인담당(김진희) 교원의 임용기간은 조교수의 경우 3년 임용하여 일반적으로 3월 1일자로 임용될 경우, 2월 말까지가 임용기간이 되나, 4월 1일자로 임용되는 경우는 학기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의 제2항에 의거 8월 31일이 임용기간 만료일이 됨을 추가 설명하다.

이 사(오초녀) 동의하다.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9호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 임용 제청 심의 건은 서영자 선생을 2021년 4월 1일자로 3년간 계약제 전임 교원(조교수)으로 신규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10)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제청 심의(추인)

의 장(김도영) 의안 제10호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제청 심의(추인) 건을 상정하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전년도에 2021학년도 신규교사 충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3명을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1명만을 승인받게 되었고, 3월 1일자로 임용 확정된 과학(생물) 교과와 신창훈 선생의 인적사항을 설명하다.

(신창훈 선생 입실하여, 인사하고 퇴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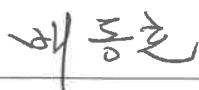


행정실장(류승현) 현재 순천청암고등학교에서는 신규 교사 채용 시, 자체 전형은 없어졌으며 1차 필기는 공·사립 동등하게 임용고시를 치르며, 2차 수업 시연과 3차 면접은 자유선택이나 이번 생물 교사 채용시에는 1, 2차를 교육청에 위탁하였고 3차 면접만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차 30%, 2차 30%, 3차 40%로 배점하였고, 의 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면접위원 구성도 7명으로 늘리고 최고점 최하점을 빼고 면접 점수를 반영하여 신창훈 선생이 최종합격하게 된 과정을 추가 설명하다.

이 사(강병환) 1차 필기를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라이프케어과의 경우 미용을 전공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채용을 못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하며, 교육청에 계속해서 충원 요청할 예정이지만 자체 전형의 경우도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에서 미용 쪽 충원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이사님들과 논의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다.

이 사(강병환) 라이프케어과가 특수 학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채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도내에 미용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교가 전남미용고등학교와 별교상고 2개교가 있다고 설명하고 충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며, 간호학과 역시 작년에 충원계획을 올렸으나 되지 않았고 간호학과 교사 정원이 8명인데 정교사가 2명, 기간제 교사가 6명으로 향후 5년간을 감안했을 때와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등의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명을 충원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동의하다.

이 사(강병환) 재청하다.

이 사(오초녀) 재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의장이 자리를 잠시 비워, 배석한 후)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전달하다.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10호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제청 심의 건은 순천청암고등학교 과학(생물) 교사 신창훈 선생을 2021년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추인)되었음을 선언하다.

#### 11) 청암대학교 2021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 제청 심의

법인담당(김진희) 기타 토의하기 전에 어제 긴급하게 대학에서 제청 올린 2021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 제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안건 상정에 동의하고 이사들에게 안건 상정 동의 여부를 질의하다.

이 사(전 원)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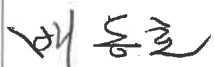


의 장(김도영) 동의와 재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다.

의 장(김도영) 의안 제11호 청암대학교 2021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 제청 심의 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류윤석)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월 1일자로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하지 못했고, 병원의료정보과, 웹툰콘텐츠과,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 7명을 충원하기로 하였고, 서류접수 결과 병원의료정보과에 2명이 지원하였는데 1명이 지원자격 미달로 채용이 중단되었고, 웹툰콘텐츠과는 2명이 지원하여 채용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고병준 선생을 임용예정자로 선발하여 2021년 4월 1일자로 임용 제청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간호학과 2명, 소방안전관리과 2명, 산학협력처(자연과학계열) 1명 총 5명이 지원하여 공개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1명이 당일날 포기하였고, 최종적으로 간호학과 정경애 선생, 간호학과 하태희 선생, 소방안전관리과 김자연 선생을 임용예정자로 선발하여 2021년 4월 1일자로 임용 제청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조금 전 9호 안건에서 임용확정된 간호학과 서영자 선생과 웹툰콘텐츠과의 고병준 선생은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3년 임용기간의 조교수로 채용되며,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이 1년이며 전임교원이므로 재임용은 당연히 보장되고 직급은 조교수이며 혁신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교원으로, 2021년 2월까지의 급여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점 등 계약제 전임교원과의 차이점을 추가로 설명하다.

이 사(강병환) 결격사유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법인담당(김진희)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답변하다.

이 사(강병환) 채용을 또 시행하는지를 질의하다.

교무처장(류윤석) 4월1일자로 교원확보율을 보고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교원 확보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다.

이 사(배동호) 청암대학교 4월 1일자 신규임용 제청에 동의하다.

이 사(오초녀) 제청하다.

의 장(김도영) 동의와 제청에 따라 의안 제11호 청암대학교 2021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 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신규임용 제청 심의 건은 고병준 선생을 2021년 4월 1일자로 3년간 계약제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신규임용하고, 간호학과 정경애, 하태희 선생, 소방안전관리과 김자연 선생을 2021년 4월 1일자로 1년간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조교수)으로 신규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라. 토의사항

의 장(김도영) 기타토의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유병용) 1호 안건에 대해 발언해 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의 장(김도영) 1호 안건은 법원에서 4월 2일까지 이사회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효력정지가 언제까지 내려졌는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4월 2일까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 의안 상정이 다시 되는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그건 잘 모른다며, 그 이전에는 상정이 안된다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법원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요? 라고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잘 들리지 않는듯) 네?라고 되묻다.

이 사(유병용) 법원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요? 라고 재차 질의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는 듯 하여) 법원 판결에 따르면 되겠는지를 대신 전달하여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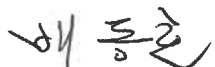


이 사(오초녀) 법원 판결에서 상정되면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4월 2일 이후에는 다시 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법원 결정을 보고 말한다는 뜻인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잘 들리지 않는듯) 네?라고 되묻다.

이 사(유병용) 법원 결정을 보고 말한다는 뜻인지를 재차 질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의 장(김도영) 그렇지요.라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잘 알겠다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폐회선언을 하려고 하다.

이 사(오초녀) 잠깐만요.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폐회하려고 하다.

이 사(오초녀) 잠깐만요.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네.라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사무국장에 대해 명확히 좀 짚어달라고 요청하며, 지난 이사회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느냐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사무국장은 법인 직원이라고 설명하며, 호칭을 국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보수 법인 직원이라고 발언하며, 무보수 법인 직원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이사장님!하고 호명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회 규정은 아니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법인에서 보수가 나가면 이사님들 동의도 구하고 하지만, 보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 일을 봐주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쓴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 사(배동호) 교육부에 갔을 때도 사표냈다고 본인(이봉규)이 그렇게 말하고.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네?라고 반문하다.

이 사(배동호) 사직서를 냈다고 교육부에 갔을 때 본인(이봉규)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교육부에 갔을 때 누가 사직서를 냈냐고 질의하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본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배동호) (의견이 있는 듯) 저지요.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법인 직원은 제가 절차에 따라서 직원을 임명을 했으니까 법인에서 보수가 나간다고 하면..이라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다.

의 장(김도영) 그러면 이사님들께서 무보수로 법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며, 법인 일만 볼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그건 안되지요. 의장님 말만 잘 들으면 안 되지요. 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이사장 하는 일에 뭐 그렇게 단도리를 치십니까? 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우리는 법인 직원을 쓰시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쓰시면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설명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의 장(김도영) 적법한 절차를 전부 다 밟았다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질의하며, 우리는 그 절차를 알 수가 없다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절차를 밟았고, 법인 직원 문제에 대해서 할거면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다뤄보자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사표를 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교육부에 갔을 때도 이봉규씨가 오셔서 저도 사표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사표낸 줄은 모르고 저한테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아니, 이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사장님도 “그만 둡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 번복을 하시면 안 되지요.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저는 번복한 일도 없고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라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아니, 말꼬리 보다도.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아니, 우리 이사들이 지금 뭘니까? 지금 와 있는 게.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1호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이사회를 폐회하겠다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법원 결정문을) A4용지에 인쇄를 해서 나눠줬다고 설명하다.

법인담당(김진희) 간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여쭙다.

의 장(김도영) 간서명은 이사회실에 나와 있는 이사님들 중에 하시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의장이 간서명을 안 하느냐고 발언하다.

(김도영 이사장 화면에서 자리를 비우다.)

이 사(유병용) 폐회도 동의를 안 받고 또 나가버렸다고 지적하다.

(김도영 이사장 다시 착석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장에게) 정식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폐회 동의까지 받고.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오늘 안건 다 끝내지 않았느냐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그래도 우리 이사님들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법인 국장 문제를 논의하시려면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상정해서 올리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이것은 정식 안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짜 사무국장인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기타토의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이봉규씨가 법인 직원이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이봉규씨가 뭐라고요? 라고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법인 직원이라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이사장에게 법인 직원 임명권이 있다고 설명하며 정관을 잘 읽어보시라고 발언하다.

이 사 배동호	배 동 호	이 사 오초녀	오 초 녀	이 사 유병용	유 병 용
------------	-------	------------	-------	------------	-------

이 사(유병용) 정관은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절차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이사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지금 정관도 제대로 안 읽어 보시고 ...하듯이 하지 마시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법인 사무국장을 인정했어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어디서 했다고요? 라고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교육부에서.라고 답변하다.

이 사(배동호) 교육부에서요? 라고 재차 확인하다.

의 장(김도영) 맞다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교육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어쩔겁니까? 인정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쩔실 겁니까? 라고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교육부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또 토의해 봅시다.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는지를 동의를 구하다.

의 장(김도영) 네.라고 동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방금 전 교육부에서 문자가 들어와 사무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다른 대화도중 사무국장 문제도 불분명 하다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가 왜?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방금 또 말씀이 자꾸 달라지시니까 드린 이야기라고 설명하다.

의 장(김도영) 교육부에서 왜 그런 것까지 터치를 하느냐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교육부에서 또 인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재차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장님,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그 다음에 이사회는 더 이상. 사무국장 건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음에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오초녀) 그렇다면 지금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의 장(김도영) 저는 안 된다며 오초녀 이사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음에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법인 담당직원을 불러 이상 폐회한다고 설명하다.

이 사(오초녀) 폐회에 동의 안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우리가 폐회에 동의해야만 폐회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폐회합니다. 라고 발언하고 화상회의 화면에서 자리를 비우다.

이 사(강병환) 동의와 재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회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며, 이게 폐회가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이 사(오초녀) 안 되지요. 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의장이 혼자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지금까지 한 번도 폐회에 동의해 본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이사장님만 폐회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저렇게 가서 버린다고 발언하다.

이 사(강병환) 저번에도 그랬지요. 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이사장이라고 해서 직권으로 법인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발언하고, 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의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과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의장이 퇴실했으니 녹취도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강병환) 폐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녹취를 중단하냐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의장이 나갔으니 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의장을 부르라고 법인담당에게 요청하다.

이 사(유병용) 이사장님이 저렇게 퇴청을 했는데, 5분 안에 입장을 안 하면 우리가 폐회를 하던지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5분간 정회하자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화상회의 화면에 다시 나와 10분간 정회하자고 발언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이사님들께서 이미 정회하자는 의견을 내셨다고 전달하다.  
(10여분간 정회하다.)

의 장(김도영) 사무국장 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해 안전으로 상정한다는 뜻인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예? 라고 질의하다.

이 사(유병용) 안전으로 상정한다는 뜻인지를 재차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안전 상정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오늘은 앞으로 사무국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개진하자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면 의장님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저는 이미 사무국장을 임명해 왔다고 답변하다.

이 사(유병용) 본인(이봉규)이 이미 그때. 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이봉규씨를 법인 직원으로 임명해 왔다고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이봉규씨가 사직서까지 냈고, 우리에게 유인물로 사직한다고 나눠주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다.

의 장(김도영)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다.

이 사(배동호) 알아보시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이사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발언하다.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오초녀	이 사 유병용	유병용
------------	-----	------------	-----	------------	-----



의 장(김도영) 그러면 이봉규씨가 직접 설명드린다고 발언하다.

전 특보(이봉규) 저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법인직원으로 임명 돼서 무보수 계약서까지 썼다고 설명하다.

이 사(배동호) 사직서 썼다는 유인물을 요청하다.

前 특보(이봉규) 제가 사직서는 썼는데, 이사장님이 반려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류승현 전 사무국장이 회의장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아까 류실장님이 교육부에서 (저를) 사무국장으로 인정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시는데, 왜 이사회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우리가 이사회에 불렀다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우리가 요청했다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제가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김도영 이사님께서 교육부에서 인정했다고 발언하시기에 동의받고 드린 말씀이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것은 지난 3월 2일날 이사님들과 류실장님이 교육부를 다녀왔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교육부에서는 저는 이사장님측 사무국장으로 참석을 했었고,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사무국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날 회의를 했어요.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인정을 하고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대신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한 거죠.라고 발언하다.

전 특보(이봉규) 그리고 류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부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무국장을 교육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무국장 관련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김도영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김도영 이사님께서 방금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사회 회의 도중에 교육부 사무관님과 통화하게 되어 사무국장 관련 내용이 나와 이번에 그걸 좀 짚고 넘어가 주라, 교육부에서 봤을 때도 그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상황을 설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걸 왜, 교육부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아니, 사무국장이 불분명하다는 거니까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라고 답변하다.




前 특보(이봉규) 사무국장은 이사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임명을 합니다.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아닙니다. 라고 발언하며, 이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라는 것은 정관에 없다고 설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지금 류승현 실장님이 자꾸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데.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저한테 지금 여쭙보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누가 아니, 지금 류승현 실장님한테 교육부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는 거예요.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러니까요.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그것을 해야 지금 답변이 되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지금 발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이사장님이 류승현 실장한테 아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고 했어요? 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얻고 했다고 설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 이사장님의 말씀은 교육부의 중대회의를 이사장을 대신해서 다녀와서 교육부에서 사무국장으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정이 됐다는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우리 법인 정관에, 아까 정관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법인 정관에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없다고 발언하며, 어디 정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질의하고, 「사무국의 법인 사무과장은 부참사 또는 참사로 보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류승현 실장이 정관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어디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이사장은 법인 업무를 통리해요. 통리. 모든 업무를 통리하기 때문에 정관에 굳이 없는 사항은 이사장이 통리해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것을 왜곡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곡한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러면 이사장이 법인 업무를 통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전체를 총괄한다는 말이겠지요. 라고 답변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렇지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면 총괄할 때 규정대로 해야하지.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통리한다고 정관에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다.

前 특보(이봉규) 방금 류승현 실장이 그랬잖아요. 정관에 없다고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리고 아까 자꾸 참사나 부참사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회의 중에도 법인 예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항상 교육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 직원이 법인 직원을 겸할 때는. 이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그러면 겸직을 하면서 제가 급여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의하고,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법인 내 직원을 놔두고 외부인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라고 것이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제가 왜 외부인입니까? 이사장 특보인데.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직원이 지금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아니 그리고 직원이 법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모순된 말을 해요? 교육부의 지적사항이 법인 일을 겸직직원이 하면 급여부분은 법인에서 해라. 지적사항 아니에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알고 있다고 발언하고, 그럼 작년 2월 14일날 저를 불러서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달라고 하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의하다.

前 특보(이봉규) 저예요. 라고 답변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라고 발언하며, 그때는 그럼 어떤 의미로 저한테 맡아 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의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동안 류승현 사무국장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수많은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동의를 구하다.

행정실장(류승현)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동의하다.

前 특보(이봉규) 이사장님이 그 당시 12월 말에 면직처리 한 거예요.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법인사무국장 맡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맡습니까? 제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만 더 하는 것은 사실 이잖아요. 내가 지금 법인 사무를 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런데 아까도 지적사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제가 특보로 그 많은 일을 해왔고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러니까 내가 무보수로 일 좀 봉사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계속해서 시비가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이사장님 나오라고 그래요.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이특보님! 이특보님과 이사장님이 저를 2건 고소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건은 조사를 받았고요. 곧 또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특보님이 도와주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 법인 사무국장까지 하면서 이 갈등을 조장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고, 오늘은 사무국장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사무국장 맞습니다. 사무국장을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려면 보수가 있던 없던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 여부를 따져서.라고 발언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前 특보(이봉규) 정관을 좀 찾아봤어요. 청암학원 정관 제80조(임용)에 보면, 임용권자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이사장으로 나와 있지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이사장이 당연히 임용권자지요. 라고 동의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런데 학교, 대학 총장이든 교장이든 계약제 교원이든 뭐든 이사회 그런 부분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장이 최소한도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저기 이특보님!라고 호명하다.

前 특보(이봉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이특보님 방금 임용권 말씀하셨잖아요. 80조 보면 임용권자는 당연히 이사장님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임용권자는 공개채용 등의 절차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前 특보(이봉규) 제가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라고 발언하며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가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하면서 급여가 있든 없든 자격여부와 채용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이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2019년 6월부터 이사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게 저희들의 피나는 노력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병용)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투쓰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건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원래 학교에 관선이사 파견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다 극복하고 법인 운영에 지금 안정화를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그것도. 원래는 우리 류승현 실장님 말이 맞아요. 공개채용을 해서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사실상 원칙이지만 우리 법인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김진희 선생님이 나와서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이사장님이 결정하신건데, 또 그렇더라도 제가 이런 말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사표를 냈는데 또 반려했어요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그런데 의장님은 그 사실도 또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네? 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의장님은 방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류승현 실장님! 이사장님 말투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아니, 제가 이사장님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의 석상에서, 저번에는 입장문 중에 사무국장 관련 내용도 내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또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라고 발언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前 특보(이봉규)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도 모르시니까 정식 안건으로 올리자고 하신거고요. 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네. 정식 안건으로 올리자고 동의하다.

이 사(유병용) 이특보님이랑 류실장님은 들어가지고 이사님들 나오시라고 요구하며, 지금 이사회 하는데 두 분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그러니까 이사님 나오시라고 요구하다.

이 사(오초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그리고 류승현 실장님! 류승현 실장님은 계속 사무국장 하고 싶어요? 라고 질의하다.

행정실장(류승현)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발 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직시켜주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해 주시라고요. 라고 발언하다.

前 특보(이봉규) 어쨌든간에 이사장님 뜻은 12월 말에 저를 임명한 것은 법인 운영을 그동안 제가 법인 일을 많이 봐와서 제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산 문제, 자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이사장님 지금 오시라고 할게요. 회의 진행하세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 다음에 안건에 올리자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유병용)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다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오늘 폐회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의 장(김도영) (화상회의 화면에 참여하여) 제가 사무국장, 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시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정식 안건으로 해서 그때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며, 오늘은 벌써 2시간이 경과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여기서 이만 끝내자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한 말씀 올리겠다고 발언하며, 다음에 하자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류승현 실장이 일하고 있었는데 류승현 실장도 무보수 아닙니까? 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아. 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제 의견을 듣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이봉규 그분을 법인 직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류실장은 저한테 12월말까지만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라고 설명하다.

이 사(유병용) 잠깐만요. 그러니까.라고 발언하다.

의 장(김도영) 자꾸 말꼬리를 잡지말고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합니다.

이 사(유병용) 아니요.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이 사(오초녀) 아니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김도영 이사장 화상회의 접속을 끊고 퇴실하다.)

이 사(유병용) 나가버리셨네. 라고 발언하다.

이 사(강병환) 아니, 폐회 동의도 없이 재청도 없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나고 발언하다.

이 사(배동호) 할 때마다 이렇다.라고 발언하다.

이 사(오초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특보가 류실장한테 “그럼 당신이 해라.” 고 그러고 나갔잖아요.라고 발언하다.

이 사(강병환) 그랬어요? 라고 질의하다.

이 사(유병용) 그때도 그랬다고 동의하다.

이 사(오초녀) 그러면 나는 나가겠다고, 류실장이 하라고 나가놓고 왜 이제 와서..라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법인 담당에게 이사장님을 다시 불러보라고 요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화상회의 접속에서 아예 나가버리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저희가 초대를 해서 화상회의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아예 접속에서 나가버린 상태라고 설명하다.

이 사(배동호) 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다음 번에 해야겠다고 발언하다.

이 사(유병용) 우리가 폐회해봐야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 이대로 5분간 나뒀다가 폐회 동의없이 중도 폐회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하다.

(폐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유롭게 토의하다.)

이 사(유병용) 이사장님이 또 폐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우선 우리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배동호 이사님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폐회 동의 및 간서명 대표자 호선 건, 차후 논의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전 원) 동의하다.

#### 마. 간서명 대표자 호선




임시의장(배동호)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의거 본 회의의 회의록 간서명함에 있어 3인을 호선할 것을 요청하다.

이 사(전 원) 배동호, 오초녀, 유병용 이사님이 간서명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임시의장(배동호) 배동호, 오초녀, 유병용 이상 3명이 간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바. 차기 이사회 개최 관련

임시의장(배동호) 오늘 이사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의안 제1호는 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은 4월 2일 법인 판결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법인 사무국장 문제도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고 발언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이 사(유병용)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임명 문제인지를 직위에 관한 문제인지를 질의 및 확인하다.

임시의장(배동호) 사무국장 임명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이 사(강병환) 지금 이사장님께서 직권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했는데, 그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명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직권으로 지금 내려보냈는데 차기 이사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오초녀) 차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다.

이 사(유병용) 재청하다.

임시의장(배동호) 재차 이사 전원에게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기 안건에 대해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오초녀) 차기 이사회부터는 지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바. 폐회선언

임시의장(배동호) 이사회 폐회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1회 법인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 2021년 3월 25일 15시 00분)

2021. 3. 29.

## 학 교 법 인 청 암 학 원

이 사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이 사 유병용	
------------	---	------------	---	------------	---

이 사 장

김 도 영

서명

이 사

강 병 환

강병환

이 사

강 사 별

강사별

이 사

배 동 호

배동호

이 사

오 초 녀

오초녀

이 사

유 병 용

유병용

감 사

신 경 오

불참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이 사 오초녀	오초녀	이 사 유병용	유병용
------------	-----	------------	-----	------------	-----